창작활동 직접 지원과 인프라 구축 병행

박 상 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원2부장

'문학은 위기다' 라는 말을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는지 아련하지만, 아직 유효하다. 누군가 문학의 위기를 처음 말한 것은 아마 20년 전쯤(아니 그 훨씬 이전이나 이후라도 좋다)의 어느 한 시점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녕 그 까닭이 있을 터인데, 대개는 각종 물질 ·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와 이야기를 표현하고 이것을 소통하는 방식이 놀랍도록 다양해진 현실을 첫째 로 들고 있다. 즉 문학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삶과 정신의 아름다운 서사(敍事)' 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러 양식들이 출현함에 따라 전통적 의미의 문학과 문학인의 지위가 사라져가는 것을 문학의 위기로 일컫는 것이다.

옛날옛적 훠이훠이 시절부터 내려온 문학 전통을 이어받는 일도, 국민 누구나 시에 취하고 소설에 반하여 전 국토가 문학적 향기에 둥둥 떠다니게 하는 일도, 또 남북분단시대를 극복하고 문학의 국제교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세계 제일로 하는 일도, '지금' · '여기' 의 문학인과 그들의 창작 행위를 신명나게 하는 일보다 결코 앞에 둘 수는 없다.

문학의 권위와 존엄을 회복하는 창작지원

작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의 '새 예술정책' 은, 그 동안 예술지원은 있었어도 예술 정책은 없었다고 평가되는 역대 모든 정부의 빚을 한꺼번에 갚고자 하는 대단한 의욕에서부터 출발했으며, 이는 문학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새 예술정책' 의 문학 분야는 문학의 전통적 권위와 존엄을 회복함과 함께 문학인의 자긍심을 되살려내기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문학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제안된 프로그램들은 ▶문인 원고료 직접 지원 ▶문학 창작 Fellowship 지원 ▶신진 문인 New – Start 프로그램 등이다. 원고료 지원사업은 전업문인(특히 소설가)들로 하여금 창작과 발표만으로도 생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1989년 이와 유사한 '문예지 원고료 지원사업' 이 문예지(문학매체)의 문단 권력화와 사단화(私團化)를 가장 큰 이유로 폐지된 후 15년만에 전면 개선된 방식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당시에는 문예지사의 원고료 지원금 유용, 일부 문인의 지원금 수혜 과다와 편중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나, 이들을 모두 더하여도 문예지사나 문예지 편집자의 문단 권력화와 사단화를 조장한다는 문제점보다 질량적으로 결코 크지 않았다. 이 원고료 지원사업은 1973년 처음 발표될 당시부터 문단 안에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던 사업이며, 문학인들은 원고료의 직접적인 체감 효과 때문에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의 부활을 고대해 왔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1970 · 80년대의, 문예지사를 통한 원고료 지원 방식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문예지 운영에 직접 관계하는 소수 말고는 크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문예지사를 통할 이유가 없으며, 여러 장치를 제도화하여 문학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믿는다. 창작 발표 공간이 되는 문예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예지 구입 배포 지원사업을 확대하면 충분하며, 이는 국민의 문학향수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음, 창작 Fellowship 지원사업은 발간비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지금까지의 소액 분배 방식을 공적 지원의 만족도와 실효성이 높은 소수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에서 제안되었다. 이 사업의 시행을 통해 문학인들의 창작 기반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실추되어 있는 문학인들의 긍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의 우리 문학을 짊어지고 나갈 신진 문인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진 문인 New – Start 프로그램이다. 역량있는 신진 문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작품집은 대부분 시장논리에 따라 출판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신진 문인들의 본격적인 문단 입성과 창작 활동을 돕는 '신진 문인 첫 작품집 지원', 창의력이 풍부하고 사고가 유연한 신진 문인들에게 해외의 다양한 창작 환경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하는 '신진 문인 해외 레지던스 지원', 문단에 나오고도 문학적 소양과 전문식견을 심화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해소하는 공적 시스템을 구비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성숙시키고자 하는 '신진 문인 연구 · 연수 · 장학 지원' 등이 신진 문인 New – Start 프로그램의 내용들이다.

이 밖에 문학 창작활동 지원 분야에서 논의된 사업들은 ▶문학 창작소재 개발 지원 ▶창작집 대여 인센티브 지원 ▶문학인의 집 건립 ▶문학생태 조사연구 프로젝트 등이다.

매체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

두 번째는 매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학 정책들인데, 가장 중요하고도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문학 향수 매체 다양화 사업 ▶인터넷을 이용한 문학 교육 사업 ▶사이버 문학박물관 구축 사업 등이 그것들이다.

향수 매체 다양화 사업의 경우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문학 향수 매체를 다원화함으로써 대중의 문학 친화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른 장르에서 문학 텍스트를 사용할 때 원작료 지원' · '문학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제작물에 대한 홍보 지원' · '문학 사이트 지원 확대 강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공간에 구애되지 않고 정보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문학을 교육하고 자발적인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문학교육 사업은 '청소년 비평 전문 웹진 신설' · '기성문학 사이트와 청소년문학 사이트의 결연 운동'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문학박물관은 말 그대로 '문학 네트워크 구축'과 '각종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 밖에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인 우수 문학작품집과 문예지 구입 배포 사업은 앞서도 언급하였듯 지속하면서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학 자원화, 향수 · 교육 활성화, 남북교류, 세계화

세 번째는 문학 유산의 보존과 문학 자원화 프로그램들로서 ▶지역문학관 건립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 ▶가칭 '한국근현대문학관' 건립 ▶문학 유적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사업 ▶문학지도 개발과 보급 사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문학지도 개발과 보급 사업은 주 5일제 근무시대에 대비한 사업으로서, 가족형 테마 여행의 자료로도 제공하고, 이를 다시 사이버문학관에 올려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문학 관련 종합 안내책자를 온 · 오프라인 형태로 발간하여 문학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네 번째는 문학 향수권 신장과 문학교육 활성화 프로그램들인데 ▶문예교사제 확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학정책 ▶청소년 문예활동 지원 ▶우수 문학제 지원 육성 ▶지역 특성을 살린 문예교재 출판 지원 등이 있다.

문예교사제는 문학인들과 학생들이 직접 교유함으로써 문학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히도록 하고 학교 문학교육의 전문화와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준(2003년 50개교 50명 파견, 초청특강 30개교)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진중문고 확충과 사서전문병 육성' · '교도소와 소년원 문학교사 지원' · '저소득층 청소년 공부방 문예교사 지원' · '외국인 노동자(자녀) 대상 문예교사 지원' 등을 세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문학정책들은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로 생각되어 논의하였다.

차세대 작가 발굴과 고급 문학독자 개발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창조적인 국민 육성을 지향하는 청소년 문예활동 지원 프로그램들은 '청소년 문예지 간행 지원' · '청소년 문학동인지 간행 지원' · '청소년 문예활동 공간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현재는 2003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푸른 작가〉(민족문학작가회의 주관, 문학동네 발간)가 유일한 청소년 문예지이며, 아주 소박한 형태로 몇 종이 나오고 있는 청소년 동인지 중 1종을 민간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관련 문인들만의 내부 행사에 머무는 많은 문학제들을 국민문학제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수 문학제 지원 사업 및 지역 특성을 살려 현장감 있는 문예교재를 출판하여 해당 지역에 보급하는 사업은 지역 국민들의 문학적 소양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제안하였다.

다섯 번째로 남북문학 소통과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남북작가회담 개최 ▶본격적인 북한 문학작품 소개 사업 등이 논의되었다. '남북작가회담을 통해 남북해외문학인 평화문학 캠프를 DMZ에서 개최' 하고, 2003년 문예진흥원에서 발간한 통일문학전집의 차원을 넘어 '북한 문학작품을 완전 개방' 하고 '남북 공동문예지를 발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과 문화통합을 위해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로서 ▶우리 문학 번역 출판 사업의 확대 ▶국내 문학인의 국제창작 워크숍과 해외문학행사 참가 기회 대폭 확대 ▶해외문인 국내 초청 적극 활성화 ▶해외 대학의 한국문학 전공교수직 확보 사업 ▶한국문학 해외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한국문학 번역 여건 근본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문학번역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그 예산 대책은 거국적 차원에서 충분히 세워 주어야 할 것이다. 언어의 해협을 넘어야 하는 난제가 있으므로 문학의 국제교류는 다른 장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여전히 문학은 대표적인 서사장르

'문학의 위기' 는 곧 '문학인의 위기' 로 이어져 왔으므로 그토록 문학인들 스스로가 '위기' 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보라, 문학인 말고 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냉정하게 말하면 대중들은 문학이 위기라는 진단에 거의 관심이 없다. 문학의 서사성을 차용하거나 아예 대체해 온 게임 · 애니메이션 · 영화와 같은 장르, 오랫동안 문학이 외면했던 이른바 무협소설 · 판타지소설 · 인터넷소설과 같은 하위 장르들은 이제 엄연히 보편성과 대중성(통속성이라 해도 좋다)을 충분히 획득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까지 눈부시게 달라지는 환경이 문학에게 억지겸손을 강요하였다면, 이제는 문학 스스로 진정한 겸손을 택해도 좋다는 자신감을 가져보자. 문학이 그렇게 고개를 숙인다 하더라도 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대표적인 서사장르의 지위는 아직 잃지 않았다는 강고한 믿음 때문이며, 아울러 '새 예술정책' 수립을 위해 문학 분야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번만큼은 '믿어 주세요~' 라고 감히 주장해도 될 듯한 설레는 기대 때문이다.